

# 전국 최초 '신안군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젊은층 참여 쇄도

### 결성 1년도 안돼 조합원 340여명...절반 가량이 30~40대 시설비용 50% 지원 받아 묘목 양성...254세대 농가 참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영철·이하 조합)이 1년도 안 돼 30~40대 젊은 조합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340여 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원들 중 양묘에 뜻이 있는 조합원들은 하우스시설비용 50%를 지원받아 묘목을 양성하면 된다. 생산지역은 신안군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지역에서 가능하며, 올해 4월 기준 254세대 농가가 참여해 138만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예정이다. 양성된 묘목은 신안군이 전량 매입하므로, 조합원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묘목만 관리하면 되는 안정된 사업이다.

조합원의 농가들은 100평(330㎡) 5000그루 기준 약 2000만~3000만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어 다른 지역 농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 양묘는 묘목 종류에 따라 3~6개월이면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양묘기간이 짧고, 각종 병충해로부터 안전해 타 작물에 비해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수분 관리만 잘해주면 되고, 묘목 납품 회사에서 수분관리법 등 묘목 양성에 필요한 기술도 제공해 주고 있어 귀농을 희망하거나 초보 농업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유망한 사업이다.

정원 조성 등으로 묘목이 필요할 때 외지에서 구입하면 운송과정에서 뿌리가 마르거나 상처 등으로 묘목에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군내 지역에서 양성된 묘목은 이동이 쉬워 피해가 적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또 군내 지역에서 양성된 묘목이기 때문에 토양

이나 기후 환경 등 같은 지역 환경 조건으로 활착과 성장성이 양호하다고 보고 있다.

군은 묘목 구매 시 다른 지역 구매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원 조성 사업에 조달할 수 있어 고사할 위험성도 최소화하는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조합 설립한 지 1년도 안 돼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조합 이사장 취임식에는 양묘사업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은 등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묘목 양묘를 하려면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신안군 거주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70세 미만이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당 조합의 적극적인 양묘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청·장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군은 묘목 구매 때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에 이식할 수 있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 도초면 1400평(4628㎡) 규모 온실에서 양묘 2개월 된 생달나무 7만그루가 자라고 있다.<신안군 제공>

## 해남군 100억원 들여 땅끝관광지 리폼한다

### 황토나라테마촌 리모델링

### 카라반존 조성·산책로 등 정비

해남군이 땅끝관광지 리폼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해남군은 대한민국의 시작, 땅끝마을을 일원 땅끝관광지에 대한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인 '땅끝관광지 리폼사업'을 이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을 통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관광의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광객 만족 프로그램을 발굴해 노후화된 땅끝관광지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반도의 시작점인 땅끝관광지는 지리적 여건에서 오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대체할 수 없는 문화관광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해남의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체험형 프로그램이 부족해 리뉴얼이 필요한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이번 사업은 땅끝관광지의 대표 숙박·휴양시설인 땅끝황토나라테마촌과 오토캠핑장의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휴양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황토나라테마촌에 진미특관장과 공방촌을 리모델링하고, 카라반존 조성, 송호마을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전경.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산책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오토캠핑장을 확대·리모델링해 캠핑 체험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새로운 시설로는 카라반존과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가족 단위나 단체 관광객들이 머물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의 사업은 착공했으며, 2025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을 대표하는 땅끝관광지가 체류형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쓰레기통 없는 영암왕인축제 관광객 큰 호응

### 추진위·관광재단 등 평가회의

영암군은 최근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지난달 말 막을 내린 왕인문화축제 평가 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재단법인 영암문화관광재단, 체험·홍보 부스 담당 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왕인문화축제는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상대포로 공간을 확장했다. 상대포에서는 실경산수공원 '월인천강'과 불꽃놀이, 낙화유수 등이 열렸다.

또 전용 다화용기(사진)를 사용해 '쓰레기통 없는 축제'로 만들어 관광객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에서는 음료잔과 그릇 등 다화용기 13만 개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7.1t을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이를 포함한 의견 10건을 제출해 내



년 축제 진행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축제 개선점으로는 어린시 관광객 이동 표지판 설치, 지역민 공감 체험장 추가 마련, 2층 컨테이너 부스 안전성 확보 등이 제기됐다.

한편 '시공초월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를 주제로 한 올해 왕인문화축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영광군 '방사능 방재교육 민간 강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입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영광군 3개월간 방사능 방재 민간 강사 교육

영광군은 최근 '2024년 방사능 방재교육 민간 강사 양성 아카데미' 2기 교육을 시작하고 3개월간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기 교육생들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방사능 비상 대비 주민의 자율방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

주민 친화적 민간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은 ▲원자력·방사선 기초 ▲원자력발전소 이해 ▲국

가 방사능 방재체계 ▲방사선 재난 때 주민 행동요령 ▲교안 제작·강의 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우수 교육생은 올 하반기 방사능 방재교육 민간 강사로 위촉돼 주민 대상 교육을 펼친다. 영광군은 지난해 17명의 방사능 방재교육 민간 강사를 양성해 총 83회 12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을 했다. /영광=김정환 기자 kcw@kwangju.co.kr

## 신안 자은도 '피아노섬' 축제... "피아노 기증받습니다"

### 기증 절차 거쳐 공연용으로 사용

신안군이 '피아노의 섬'으로 지정된 자은도에서 해마다 열리는 '100+4 피아노섬 축제'에 사용될 공연용 피아노를 기증받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피아노를 신안군에 기증하기 위해 연락(061-240-8075)을 하면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피아노 상태와 운반거리 등을 고려해 기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국적인 축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피아노섬 축제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100+4 피아노섬 축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축제는 104대의 피아노가 한 명의 연주자가 연주하는 것처럼 조화롭게 연주하는 독특한 공



지난해 열린 피아노섬 축제에서 연주하는 104명의 피아니스트.

연을 선보이며, 신안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피아노섬 축제가 지역주민

과 전국민이 함께하는 한국의 문화풍경에도 새로운 장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군 찾아가는 군민 서비스 '보배섬 온돌' 운영

### 자원봉사자 180여명 참여

진도군이 보건, 복지, 문화 혜택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 2개소를 찾아 민관협력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진도군 희망복지지원단,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자원봉사센터와 전남지역 7개 대학(동신대, 동아보건대, 목포대, 목포과학대,

세한대, 초당대, 전남도립대) 대학생연합봉사단을 비롯해 진도노인복지관, 민간 자원봉사자 등 1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조도면 창유마을과 군내면 신기마을을 찾아가 마을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물리치료 ▲문화공연 ▲푸드트럭 운영 ▲엘이디(LED) 전등 교체 ▲세탁봉사 ▲우렁각시봉사단 정리수납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개선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펼쳤다.

군은 매월 2회 진도군 찾아가는 군민행복 서비스 '보배섬 온돌 민관협력사업'을 전남행복버스 등과 연계해 보건, 복지, 문화,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기마을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13명의 주민이 자원봉사자들과 대학생들을 위해 직접 만든 커피를 제공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보배섬 온돌 민관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복지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해남 농산물가공센터 농가창업 허브 자리매김

### 가공창업 기술교육·현장 방문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농업인 농산물 가공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2019년 마산면 식품특화단지내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문을 열고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과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습식가공장, 건식가공장, 자가품질실 등 센터내 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농업인의 창업 초기 설비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 개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가공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품개발실을 통해 새로운 농식품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습 공간도 제공하고, 기술지원으로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땅끝이랑' 상표를 개발해 액상차와 잼, 청 등 습식 가공품과 분말, 건조 제품 등 71종의 다양한 가공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잼, 잼, 과채주스 품목의 해협(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올해는 지역특산물인 미니 단호박의 체지방 감소 효능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성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식품 개발 안정성 원료 등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구마 등 지역 특화작목을 활용한 융복합 제품 및 고부가가치 식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